까뮈의 이방인과 성경의 이방인

(마15:29-39)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31.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3.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39.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까뮈의 이방인과 성경의 이방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7병2어의 기적을 읽어 놓고서 '까뮈의 이방인과 성경의 이방인'이라는 제목을 정하면 너무 본문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병2어의 기적이야기를 -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 여

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 마태의 성령의 감동된 의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전도사역을 하시는 중에 가나안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고, 그 일 후에 지중해 연안의 이방지역인 두로에서 북쪽의 시돈으로 올라가십니다.
북쪽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서쪽 유대 땅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갈릴리 동편 이방지역으로 빠져나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데가볼리라고 나오는 지역에서 오늘의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열 개의 자유도시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이 7병2어의 기적도 그곳에서 일어났고, 바로 앞부분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의 병과 장애를 다 고쳐주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 마태복음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14장과 비교했을 때,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전도사역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두로와 시돈으로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다 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잔디에 앉히셨다'고 얘기하는데, 잔디나 풀이 땅에서 나는 것은 유대지역에서는 봄철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7병2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면밀히 이야기 해보면, 적어도 '땅에 앉았다'는 얘기는 땅의 풀들이 다 말랐을 때이고 봄이 지나 여름으로 바뀌었거나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한 계절이 바뀐 것이고, 길게는 5,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르도록 이방지역에 계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방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유대 땅에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역사를 이방사람들에게 계속 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선민으로 산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반드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가르침이 가능합니까?
유대 땅에서만 머물 때, 이 유대인인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자기들은 선민이고 타지역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민족적, 혈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진짜 선민이고 어떤 자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선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세상에 대해서는 이방인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나와서 이방지역에 가자마자 상대적으로 그 이방지역에서는 자기들이 이방인이 된 것처럼…

그곳에는 유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방 땅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방 땅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지역도 몇날며칠이 더 걸려도 돌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만이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세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스스로가 거꾸로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선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선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선민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이방인으로써 사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이방인으로써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방인으로써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알베르 까뮈의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의 도움을 좀 받아봅니다.

까뮈의 '이방인'은 그가 29세에 쓴 책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나'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 '나'의 욕망과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들이 18일 동안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그렇게 일어난 마지막이 살인사건입니다, 친구와 친구의 정부와의 다툼에 연루되었다가 그 친구의 정부와 관련된 아랍사람을 주인공 뫼르소가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사건 때문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2부에 나오는데, 그 재판과정에 나오는 언어들이 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언어를 통해서 1부에서 뫼르소가 저질렀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뫼르소라는 주인공이 이방인으로 그려지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음을 듣고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머니를 일찌감치 양로원에 보내놓고는 어머니가 몇 세가 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심한 아들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덤덤한 상태로 엄마의 주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다 시신을 예쁘게 해서 입관을 한 다음에 대면하게 되는데 그 대면을 피해버리고 한 옆에서 엄마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밀크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푹푹 뿜어댑니다, 장례식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날,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던 마리라고 하는 여인을 해변에서 만나면서 그 여인과 해수욕 하며 쾌활하게 놀다가 코미디영화를 한 편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패륜아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만큼 지독하게 그 마리라는 여자와 성관계에 푹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사람을 살해한 재판과정에서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 이야기 될 때 판사가 뭐라고 얘기 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사형 당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통념상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덕, 윤리, 관습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갖게 되는 보편적인 정서가 있고 사람에게 알지 못하게 강요하는 그런 관습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뫼르소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그 생각이 즉흥적이면 즉흥적으로, 충동적이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정서적인 기준 같은 것, 윤리적인 기준 같은 것은 아랑곳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친구의 정부와 개입해 있는 아랍사람이 밉습니다.
그런데 그 아랍사람을 대면할 때 햇빛이 강렬하게 눈에 들어오면서 그 눈부심에 의해서 실수처럼 총을 한 방 쏘게 되었고 그 총에 그 사람이 맞았어요.
아랍사람을 보고 쏜 게 아니라 눈부신 상태에서 쏘게 된 것이니까 그랬으면 과실치사로 끝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쓰러진 아랍인에게 가서 네 발의 총을 더 쏘게 됩니다,
자기 친구를 괴롭히는 그 아랍사람이 평소에 미웠기 때문에 그 미움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해서 쏴 죽입니다.
“어이쿠, 사람이 죽었구나!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지? 재판정에 서게 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서 내 형량을 줄일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재판정에서도 남의 일을 보듯이 관찰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베르 까뮈가 그리려고 했던 그 의도는 뭐냐?
사람은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살아간다,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어떤 부조리인가 하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과 욕망이 끊임없이 사회적인 강요와 요구와 기준에 의해서 강압 당하면서 살고 있다, 전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욕망의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과 육체가 연결된 상태에서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게 나옵니다.
마음이 아래쪽 육체와 연결되게 되면 오물의 분수가 되어버립니다.
알베르 까뮈는 이 오물의 분수인 상태를 죄라는 것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뮈가 뫼르소를 통해 이방인으로 그리면서, 세상에는 낯선 사람입니다, 세상사람 모두는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사회적인 기준과 강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죽이고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형에 처해질 게 무서우니까, 사회법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뫼르소는 그냥 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는 겁니다.
까뮈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죄의 노예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수개월 동안 이방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너희가 천국의 선민으로 산다는 것은 유대지역 안에 산다는 것이나 유대인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이다'
까뮈의 이방인이 세상 사람과 달랐던 것은 오물분수의 욕망과 충동을 그대로 표현해버린 겁니다.
뫼르소가 사회적인 법이나 관습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이방인이었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뫼르소처럼 여전히 마음과 육체가 연결된 상태에서 똑같은 충동이 생기지만, 사회법에 의해 잡힐까봐, 내 인생이 굴절될까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무서워서 절제하고 참고 살아가는데…
'뫼르소는 그대로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7병2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매…'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이 신앙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연결돼 있던 마음이 예수님께로 성령님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하늘나라 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 몸을 통해 나타나는 현실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폭포의 형태로서 살아갈 때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천국선민의 모습인데 그 천국선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본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치셨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 으레 '아, 내가 병이 나면 예수님께 가서 병 고침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십자가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앉은뱅이였다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리가 온전해졌다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신앙에서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거꾸로 더 나쁜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이 개라는 걸 인정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만이 당할 수 있는 그 권한, 심판받는 자가 당할 수 있는 권한,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당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내 것으로 삼는 자만이 참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연합된 '나', 이 '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로 가득 차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천국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타나는 일들을 그려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병2어라는 것도, 또 기적이라는 것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몸과 마음이 연합된 나로 살고 있는 한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몸과 내가 연합된 그 '나'가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런 걸 바라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어버릴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서도 하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마음이 연결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하늘이 나타나는데 이방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방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삶이에요.
세상에서 전혀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방인 같아요?
7병2어의 기적이 무엇을 말하는 이방적 모습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7병2어의 기적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삼일 동안을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16장에 곧바로 요나의 표적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습니다.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광야에서 나와 함께 있은 지 삼일이 지났다'
광야에서 삼일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는 것은 삶이 있는 현장으로부터 떠나서 삶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흘을 지냈다는 얘깁니다.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벌려 하지 않았고 내가 먹으려 하지 않았고 내가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먹으려 하고, 자기가 벌어서 마시려 하고, 자기가 벌어서 입으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병2어의 기적에서 나타난 말씀은 '나와 함께 삼일을 있던 자들이기에, 세상의 삶에 죽었기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죽고 나와 함께 있고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기에 내가 이들을 먹이겠노라'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이방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눈에 이방인으로 보이는 이 삶이 천국 선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 선민의 삶.

그래서 이 15장 전체를 엮어보면,
'이렇게 천국 선민의 삶을 사는 것은 유대 땅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유대인으로써 혈연상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가 '나는 개입니다마는 개로써 주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
‘나를 붙잡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멋지게 살고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붙잡은 게 아니었느냐?’
‘그것은 천국 선민이 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여자는 ‘맞습니다, 나는 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 삶이 마땅한 자로써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선민이 되는 길이다, 그러므로 잘되고 훌륭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 왜냐하면 너희가 멋지게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는 모든 소원은 오물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 그대로 갖고 나와 나에게 소원을 빌게 되면 내가 오물분수의 소망과 욕망과 충동을 이루어 주는 자냐? 아니다’
15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살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물분수의 ‘나’라는 구조를 유지한 채, 율법을 이루어서 그 오물분수의 충동을 이루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유대 땅에 산들 그것이 선민이겠느냐?’
‘이방 땅에 살아도 내가 오물분수라는 걸 알고 가나안 여인처럼 나를 개로 여기고 나에게 나오는 자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에서 잘살기 위한 소원, 충동, 이런 것에 대해 죽고 나와 온전히 연합해서 마음이 천국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장애를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한 것처럼 천국이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벌어서 먹고, 내가 벌어서 마시고, 내가 벌어서 입고, 내가 나아지고, 내가 고치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는 이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연합된 나로서는 그 연합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죽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낯선 모습으로 돈 벌려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애쓰지 않고, 그저 마음이 가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며 사랑하게 되는 이방인의 모습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7병2어의 기적.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으매 저들이 기진하여 죽게 되겠다’
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광야에서 주님과 삼일을 지냈습니다, 이방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을 떠나 광야에서 예수님과 삼일을 지낸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셔서 먹고 사는 자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선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지역에서 7병2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유대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이방인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있는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자들이 실지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라는 구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가 이방인처럼 보여야 하고, 이방인처럼 보여서 내 먹을 것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나는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끌려가며 사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느냐? 바로 그런 이방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천국시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까뮈가 말하는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너무나 다른 뫼르소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 뫼르소는 오물분수의 뿜어져 나오는 충동과 욕구를 그대로 표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망할까봐 그것을 그대로 다 표출하지 못해요, 그걸 자유라고 얘길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천국시민이 이방인처럼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느라고 삶에 대해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며, 내 행동은 내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

고,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천국이 표현되는 천국의 티내기, 천국의 심지로 써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거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잘 적응되어 있는 모습으로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 눈에 이방인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천국시민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